

삼국유사에 나타난 점복과 예언

장 정 태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 박사과정

1. 서론
2. 『삼국유사』에 나타난 예언
3. 예언점복 분석
4. 결론

국문요약

“삼국유사는 신라중심 경주일원중심, 불교중심, 왕대중심”이라고 최남선은 주장하고 있으나, 삼국유사의 저자가 스님임에도 불구하고 이 책은 불교에 편중되기보다 무·불·도·유(巫·佛·道·儒)의 습합현상과 민속종교를 알 수 있는 얼마 되지 않는 자료이다. 그 가운데 민속신앙적 요소가 강한 점복과 예언은 조선조 말 새롭게 창교되는 신종교뿐만 아니라 여타 기성(존)종교에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발전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각 종교의 경전에는 창교자들이 인류의 미래를 예시하는 내용이 수없이 나오는데, 가령 석존은 현우경 등 수십 종의 불전에서 미래불인 미륵의 출현을 예언하고 있다. 미륵은 ‘지비로운 분’이라는 뜻이며 석가멸후 56억7천 만년¹⁾이란 먼 훗날 출현을 예언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신라의 미륵은 젊음과 새로움과 희망과 그리고 이상 현실의 상징으로 받아 들였던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백제의 미륵은 미래에 다가 올 부처님이 아닌 바로 지금 우리들의 현실 속에 다가와 우리가 사는 삶 속에 현존하고 있다. 고려에서 미륵은 도참사상에 기반이 된다. 왕권 강화 수단으로 하는 호국불교를 표방하는 미륵신앙이었다. 조선조의 미륵은 장길산 등에서 보이듯 민중 신앙화 한 미륵이다. 신종교에서 주장하는 미륵불 강세의 시기는 천상의 연수 3천년을 지상에서도 그대로 적용하여 석가부처님이 대개 3천년이 되었고, 또 ‘미륵경’에 우담화(優曇華: Udumbara)라는 꽃이 피면 성인이 나온다고

1) 최현각, 「한국의 미륵신앙도량」, 『한국미륵사상연구』, (동국대출판부, 1987), p.277.

하였는데 우담화는 3천 년 만에 꽃이 피므로 이제 미륵불이 출세할 때가 되었다는 사상적 기반을 두고 있다. 결국 이런 사상은 신종교에 와서는 총체적인 미륵으로 결실을 맺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예언과 비결은 결코 단순기능이 아니라 역사 발전에 큰 전환과 원동력이 되기도 한다.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삼국유사에 나타난 점복과 예언』은, 점복과 예언이 단순히 맞고 틀리고의 문제를 넘어 당시 기성종교가 유입되기 전 사회전반에 깔린 믿음의 한 형태였으며, 민간신앙이 고등종교인 불교와 만나며 다름도 있었고, 화해를 통해 새로운 종교문화를 꽃피우기도 하며 발전을 이루고 있었음을 알게 될 것이다.

주제어 : 삼국유사, 일연, 점복, 예언, 일관

1. 서론

일연(1206-1289)이 지은 『삼국유사』는 무신란 이후 고려후기의 혼란한 사회에 대한 자각과 반성으로부터 모순을 극복할 정신적 기준을 찾기 위해 과거의 전통을 재인식하려는 문화적 배경에서 생겨났다.²⁾ 최남선은 이러한 배경에서 편찬된 『삼국유사』에 대해 ‘삼국유사를 통해야만 한국 고대의 생활과 문화를 알 수 있으며’ 삼국유사는 조선고대사의 최고원이며 일대백과사전립으로 일연의 공은 서방의 「테로도루쓰」에도 비할 것이니라. 누가 삼국유사를 출발점으로 하지안코서 조선의 신학을 말하며 조선의 신화학, 특히 국민급고사신화학을 말하며 조선의 사회력급기발달사를 말하며 고어학, 지명학, 씨족학, 문학사, 사상사, 종교사를 말할 수 있스랴. 그러고또 조선을 중심으로 해야 할 아세아북계문화권내의 그것들을 말할 수 있으랴. 삼국유사는 실로 조선고사의 전거인 동시에 쏘불함 문화고사학의 그것인 者_나라.”³⁾ 또한 “삼국유사로 하여금 신라중심 경

2) 정병삼, 「신라불교사상사와 삼국유사 의해 편」, 『일연선사와 삼국유사』, (성남시: 일연학연구원·한국학중앙연구원, 2006), pp.193.

주일원중심, 불교중심, 왕대중심⁴⁾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삼국유사를 내용별로 살펴보면 저자는 승려임에도 불구하고 이 책은 불교에 편중되기보다 신화전설집이요, 민속지요, 시가집이며, 불교사요 삼국시대사다.⁵⁾ 뿐만 아니라 일일이 예거할 수 없을 정도의 여러 분야에서 빼어 놓을 수 없는 불후의 고전이다. 무속·불교·도교·유교 등 종교 간 습합현상⁶⁾에 관한 소개도 주목할 만하다. 다만 아쉬운 점은 삼국이란 말을 쓰기는 하였지만 실제 내용에 있어서는 신라중심의 기록으로서 백제나 고구려를 제목으로 한 기록은 약간⁷⁾만 전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본 논문이 삼국유사를 특히 점복과 예언 중심으로 살펴보는 것은 불교적 시각에서 바라보는 측면이 있으므로 단순히 점복, 예언만 부각시킬 수 없을 터이다.

점복은 먼저 미지의 불안에서 벗어나자는 것이며, 또 하나는 인생이외부의 초월적인 힘에 의해 결정되어 있다는 운명론에 대한 믿음이다. 그러므로 점복은 단순히 미래의 운명을 미리 아는 데 그치지 아니하고, 그 원인을 앎으로써 불안을 다스리고 문제의 해결책을 세울 수 있다고 믿는 것이다..... 대체로 점복은 개인의 운명론에 치중되어 있지만 넓은 의미에서는 풍수지리(風水地理)나 참위설(讖緯說)⁸⁾도 여기에 속한다. ‘이에 비해 아직 일어나지 않은 사건에 대하여 그 결과가 어떠한 것인지를 미리 나타내는 것을 도참이라 하고, 예언은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말한다’라고⁹⁾ 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 예언은 “특정한 인간을 매개로 말 또는 문자의 형태로 전달되는 초월적 존재의 의지”로 정의되고, 넓은 의

3) 일연 저, 『삼국유사』, 최남선 편저, (서문문화사, 1990), p.11.

4) 최남선, 같은 책, 7쪽. 권상로는 신라중심, 경주중심, 왕실중심 『삼국유사』, (서울: 동서문화사, 1978, p.9)으로 보고 있다.

5) 인권환, 『한국문학작가론』, 『일연론』 (형설출판사, 1991), p.91.

6) 성백성, 「삼국유사의 神개념 이해」, 석사논문,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1997), p.72.

7) 조수학, 「삼국명조의 양상」 상, 『인문연구』 5집, (영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984), p.7.

8) 유동식, 「한국의 민속·종교사상에 대하여」, 『한국의 민속·종교사상』, (서울: 삼성출판사, 1997), p.15.

9) 손산지순, 『조선의 占卜と 예언』, 김희경 역, (서울: 동문선, 1991), p.488.

미에서는 “미래에 일어날 일을 미리 헤아려 말하는 행위 또는 그 말”¹⁰⁾로 정의된다. 이들 도참이나 예언 모두 장래에 일어날 사건을 미리 지시하는 것으로 미리 출현한 사실을 기술하는 것과 같이 명확하게 표현하는 일이 용이하지는 않다. 따라서 대개 때와 장소, 사람과의 관계에 대하여 어느 정도 불명료함을 가미하는 듯하다. 특히 예언의 특징은 지어낼 당시 보통 사람이 얼핏 보아서는 용이하게 해석할 수 없는 듯한 형식으로 표현되는 것이 통례이다. 즉 그 표현은, 일반적으로 다른 문장들처럼 솔직한 면이 적고, 각종 선회적 은어와 우의적인 문장¹¹⁾을 다분히 사용하는 것이다. 우의적 표현법은 이 분야에 능통한 사람만이 비로소 해석¹²⁾ 가능한 것 등으로 정의되고 있다.

2. 『삼국유사』에 나타난 예언

달의 주기적인 변화를 통해 예언을 하기도 한다. “백제는 동근 달이요 신라는 초승달과 같다”¹³⁾는 말은 백제의 멸망과 관련한 예언이었다. 달이 변화하는 모습은 달 스스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주기에 따라 모습이 달리 보이는 것으로서, 달은 예언을 하기 이전과 예언을 한 이후에도 여전히 존재하며 변화한다. 또 하나, 멸망을 예언한 대표적인 것으로 신라의 수호신과 관련 산신이 춤을 추어올리며 노래하기를 “지리다도파(智理多都波)”라고 하였는데, 도파(都波)¹⁴⁾란 지혜로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 미리 사태를 알고 많이 도망하여 도움이 장차 파괴된다는 뜻으로 해석되며 산신이 춤을 추어 망국을 경고하는 모습이다. 이런 호국산신의 가르침은 당시 위정자들이 이를 어떻게 해석하였느냐에 따라 처방이 달라졌

10) 김탁, 『정감록』, (경기도: 살림출판사, 2005), p.201.

11) 존산지순, 같은 책, p.539.

12) 존산지순, 같은 책, p.540.

13) 『삼국유사』권1, 태종 춘추공, 『백제월륜 신라여신월』.

14) 『삼국유사』권2, 처용랑 망해사, 『지리다도파 도파』.

을 터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당시 위정자들은 신라 제49대 헌강왕에서 보듯 술과 여색(女色)을 즐기다 나라가 망한다는 산신(山神)과 지신(地神)의 암시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다. 이후 51대 진성여왕 재위 시 백성들은 참요의 성격을 빌려 “남무망국 찰니나제 판니판니소판니 우우삼아간 부이사과가 南無亡國 刹尼那帝 判尼判尼蘇判尼 于于三阿干 梟伊娑婆訶”¹⁵⁾라는 말을 하였다. 南無는 산스크리트어(Namo)의 음사(音寫)로 중생이 불·법·승에 귀의한다는 뜻이지만, 여기서는 나라가 망하는 것에 대한 경계이자 위정자들에 대한 애절한 마음을 전하고 있는데 집권세력은 이를 제대로 읽어내지 못한다. 여기서 보듯 상당한 공부물 하지 않고는 해석이 불가능, 아니, 해석이 다양할 수 있다는 맹점을 극복하지 못하는 것이다.

삼국유사 소재의 139항목 중, 약 30종 이상의 신화전설에 반영되어 있다. 전체의 약 4분의 1에 가까운 항목에 언어 주술적 내용이 노정¹⁶⁾되는 등 민속학적 자료도 풍부해 당시 사회상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다. 이들 민속 신앙적 형태의 믿음신앙들을 민속종교라 부르고 있다. 민속종교(Folk Religion)란 기층사회를 통해 전승되는 전통적 생활습속의 한 측면으로, 초월적 세계와의 교류를 통해 현실의 각종 재난을 피하고 보다 건강하고 풍요로운 삶을 누리려는 데 목적을 둔 기복적이며功利적인 종교전통이다. 이는 원시사회에서 자연발생적으로 생겨나, 한동안 사회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했다. 민속종교의 연원은 원시자연종교로까지 거슬러 올라가지만, 단순한 원시종교의 잔존물(survivals)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해 민속종교는 신념체계가 체계화 내지 성문화되어 있지 않고 유동적인 까닭에, 밖으로부터 전래된 외래종교들의 요소들을 내포하고, 그 결과 신앙구조가 상당히 중층적¹⁷⁾이다. 그러므로 어느 선까지를 민속종교라는 범주에서 논의해야 할지 애매할 때가 많으

15) 『삼국유사』권2, 진성여왕 거타지, 『남무망국 찰니나제 판니판니소판니 우우삼아간 부이사과가(南無亡國 刹尼那帝 判尼判尼蘇判尼 于于三阿干 梟伊娑婆訶)』.

16) 이을환, 「삼국유사에 나타난 언어의식 연구」, 『한국국어교육연구』1975, 「아세아공론」 1980, p.482.

17)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16』, pp.331-332.

나, 여기서는 민속화된 종교사상, 곧 민간신앙으로 한정하겠는데, 이들 민속종교의 특징으로는 일정한 경전이나 교리가 존재하지 않으면서도 사제자(무속인)와 일정 숫자의 신도가 존재하는 종교형식이라는 점이다. 한편 주술적 요소와 굿이라는 의례를 갖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이들 종교가 자생적 종교인지 혹 시베리아 샤만의 유입인지 정확한 결론이 내려지는 않았다. 샤만이라는 술어조차 인도의 사문(Samana)¹⁸⁾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다만 한반도에서 가장 오래된 신앙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제예도 사회적 공동체와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이루어졌던 것이 특색이다.

삼국시대가 되면서 공동체의 성격이 변하였고, 또한 교의체계를 갖춘 고등종교인 불교가 들어오게 되면서 민속종교가 차지했던 지위를 불교에 넘겨주지 않을 수 없었다.¹⁹⁾ 처음으로 불교를 접하게 되는 고구려는 소수림왕 2년(372) 여름 6월 진왕부견 이 사신과 함께 승려 순도를 파견하여 불상과 경문²⁰⁾을 보내오면서 한반도에 있어 불교 도래의 기록상 시작을 알리게 된다. 백제의 경우 枕流王 원년(384) 7월 마라난타가 동진에서 왔으며 인도의 승려이거나 중앙아시아 출신이라고 생각되는 그를 백제왕이 맞아들여 예를 다하여 공경²¹⁾하는 것으로 불교의 시작을 보는 데 비해 이들 국가보다 늦게 유입된 신라는 신라불교의 초전자는 아도(목호자와 아도를 동일인으로 보고)이며, 그 시기 초전시기는 신라 제19대 눌지왕²²⁾으로 보고 있다. 삼국 가운데 가장 늦게 받아들인 신라는 토속종교의 바탕 위에 교묘히 이 외래종교를 수용²³⁾하고 있다.

『삼국유사』 고조선(왕검조선)편을 보면 이러한 과정을 거쳐 한반도에 불교가 포교되기 전에 이미 존재하고 있던 민속종교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 고기(古記)에 말하기를, “옛날에 환인(桓因:제석(帝釋)을 말함)이 있

18) 이희수, 『토착화 과정에서 본 한국불교』, (서울: 불서보급사, 1971), p.24.

19) 최병현, 『불교사상과 신앙』, 『한국사상특강』, (서울: 서울대출판부, 1987), p.327.

20) 가마타 시게오 저, 신현숙 옮김, 『한국불교사』, (서울: 민족사, 1994), p.28.

21) 가마타 시게오 저, 같은 책, p.30.

22) 김영태, 『신라불교연구』, (민족문화사, 1987), p.7.

23) 인권환, 『고려시대 불교사의 연구』, (고려대학교 문화연구소, 1983), p.37.

었는데, 그 서자²⁴⁾ 환웅(桓雄)이 자주 천하에 뜻을 두고 인간세상을 욕심 내었다. 아버지가 아들의 뜻을 알고는 삼위태백(三危太伯)을 내려다보니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할 만한지라. 이에 천부인(天符印) 3개를 주어 가서 다스리게 하였다. 환웅이 무리 3,000명을 거느리고 태백산(太伯山) 꼭대기 (태백산은 지금의 묘향산임) 신단수(神檀樹)아래 내려²⁵⁾오면서부터 왕검 조선의 건국은 시작되었다. ‘태초의 시조(始祖)가 하늘에서 하강했다는 것은 신화성을 의미하며’ 또 산마루에 있는 신수(神樹) 아래에 신단을 만들었다는 것은 태양숭배와 신목사상(神木思想)²⁶⁾을 보여주는 것이다.

여기서 환웅(桓雄)이 환인(桓因)으로부터 받았다고 하는 천부인이란 신의 위력과 영감한 힘의 표상이 되는 신성한 부인(符印)을 이른 말이다. 이 세 개가 무엇인지는 문헌으로 전하지 않고 있어 분명히 알 수 없으나, 동북아시아의 유형에 나타난 바로 미루어 짐작하자면 거울·칼·방울이 아닌가 한다. 이웃나라 일본 신화에도 이 세 가지 신기(神器)가 거울·칼·구슬로 되어 있다. 이것은 하늘의 명을 받아 건국의 임무를 갖

24) 환웅의 출생과 관련 살펴보면 서자(庶子)-만 아들을 적자(嫡子)라 함에 대하여 둘째 이하의 못 아들을 서자라 하니, 곧 몇째 아들의 뜻, 동북 아시아의 고대신화에는 인간 세상이 소란할 때에, 천주(天主)의 못 아들 가운데 한 아들이 구세(救世)를 맡아 가지고 인간으로 내려오셨다는 유례(類例)가 많이 있다(삼국유사 상, 이재호, 명지대학교출판부, 1992, 84쪽). 둘째 이하를 서자라 함(일연과 삼국유사, 정병삼, 새누리, 1998, 283쪽). 여러 아들(삼국유사 1, 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03, 143쪽) 유달리 똑똑하던 아들에 대한 버릴수 없는 추망(嚮望)과 아울러 서자(庶子)라는 그의 신분에 대하여 아버지로서 마음의 부채(負債)같은것.....행여 「서자」라는 소외감에 빠져 헤어나지 못하는 환웅을 새천지로 가게해서 신분을 잊고, 마음껏 무슨 일을 하게하는 것도 「서자」인 아들에 대한 빛도 갚는 길이 될 것이었다(한국의 신화 황폐강, 단국대학교출판부, 2005, 29쪽). 하늘에서 하늘의 아들을 적자 개념으로, 하늘의 세계를 떠나 즉 천상의 질서가 아닌 지상의 인간의 질서에 편입된 하늘의 아들을 서자.....천상의 질서와 인간의 질서를 구분하는 개념(이어령의 삼국유사 이야기, 이어령, 이채강 대담, 서정시학, 2007) 땅으로 내려온 환웅은 예수처럼 하늘님(桓因)의 독생자가 아니라, 분명히 「서자」라고 기록되어 있다. 환웅이 상속자인嫡子가 아니라 방계의庶子였다고 뚜렷이 밝힌 것은, 天上의 질서는 天上의 질서대로 인식해 두려는 태도(한국인의 신화, 이어령, 서문당, 1999).

이와같이 환웅의 출생과 관련 설명하는 데 반해 설명을 생략하는 경우도 있다. 최희(홍신문회사, 2001), 이민수(을유문화사, 1996), 이동환(장락, 2001), 리상호, 강운구 사진(까치, 1999)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25) 『삼국유사』권1, 古朝鮮(王儉朝鮮). 『古記云. 昔有桓因(謂帝釋也)庶子桓雄. 數意天下. 貪求人世. 父知子意. 下視三危太伯可以弘益人間. 乃授天符印三箇. 遣往理之. 雄率徒三千. 降於太伯山頂(即太伯山妙香山)神壇樹下』.

26) 차용준, 『종교문화의 이해』5권, (전주: 전주대학교출판부, 2002), p.28.

고 세상에 내려온 사람이 그 신표로 가지고 온 것으로 볼 수 있다. 오늘날 한국 무당들이 거의 공통적으로 중요시하는 거울·칼·방울은 천부인 세 개를 지칭하는 귀물²⁷⁾이다. 세 가지 신표 가운데 거울은 무속인들의 신표로 가지고 있는 명도의 일종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거울인 명도(明圖)의 출처와 관련해 <동국패설>에 의하면, 김유신(金庾信)의 어머니와 관련 만명(萬明) 또는 신(神)이라 했는데, 지금 무녀(巫女)들이 만명(萬明)을 주송(呪誦)하고 만명신사(萬明神祠)에 반드시 동원경(銅圓鏡)을 달았으며 그 명도(明圖)라 했다.²⁸⁾ 김유신의 어머니가 무속에서 모시는 신앙의 대상이기도 하다.

‘한옹이 내려와 터를 잡았다는 신단수는, 무속인들이 점사를 보기 위해 의지하는 나무를 지칭하는 것으로, 무속은 바로 이 나무에 대한 기억(?)을 통해 무속의 정점인 세계의 주가 되는 우주수로 간다는 상징성을 지닌다.’²⁹⁾

현재 한국의 무속인들이 자신들의 거처인 신당 혹은 집에 하늘 높이 댓가지를 세우고 그 위에 다양한 상징물을 걸어놓는 것은 그것이 우주와 자신의 신령의 교통로 역할을 한다는 믿음의 상징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터다. 이것은 엘리아드의 우주수(宇宙樹)신앙과 신단수에서 근원을 찾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이런 성목숭배(聖木崇拜)는 세계적인 신앙형태로서 한국에서는 신수와 신단의 결합이 누석단(累石壇)—신수-‘당집’의 형태로 전문화하여 비교적 최근까지 전수³⁰⁾되어오는 문화현상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신라는 신라라는 국호가 생기기 이전 계림이라고 불리고 있었다. ‘혈담의 울음소리를 점친 데서 유래되었다고 전해지고 있다.’ 탈해왕(脫解王) 때 김알지(金閼智)를 얻으니 숲 속에서 담이 울어 이에 국호를 고쳐 계

27) 양종승, 「무당 귀물(鬼物)연구」, 『생활문화연구』 제 2호, 2001, p.27.

28) 이능화 지음, 『조선무속고』, 이재곤 옮김, (서울: 동문선, 1995), p.240.

29) 미르치아 엘리아데 지음, 『샤머니즘-고대적 점신술』, 이윤기 옮김, (서울: 까치, 1996), p.83.

30) 이은봉, 『한국고대종교사상』, (서울: 집문당, 1999), p.116.

림이라고 하는데, 후세에 이르러 국호가 신라로 정해졌다.³¹⁾ 《삼국사》에서 말하기를, “신라에서는 왕을 일컬어 거서간(居西干)이라고 하는데 진한(辰韓)의 말로 왕을 뜻하며, 혹은 귀한 사람을 일컫는 말이라고도 한다. 혹은 차차웅이라 하기도 하고 자충(慈充)이라 하기도 한다.”고 하였다. 김대문(金大問)은 말하기를, “차차웅은 방언(方言)이며 무당을 말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무당으로써 귀신을 섬기고 제사를 숭상하였기 때문에 외경(畏敬)하여 드디어 존장인 자를 자충이라고 부르게 된 것이다.”라고 하였다.³²⁾ 2대 차차웅은 무당을 지칭하고 있으며 이는 제사장이며 존장을 말한다고 하지만, 3대에는 이사금으로 연장자가 왕위에 오르고 있다. 긴 역사 속에 일회성으로 끝난 제사장의 역할을 놓고 전체적으로 왕은 무당이란 식의 표현은 건강부회하는 면이 없지 않으나, 초기 신라사회는 신권과 왕권이 한 사람에게 집중되었음은 부인할 수 없다.

신라의 왕관이 시베리아 무속의 관과 흡사하다든지 하는 여타의 사항이 이러한 사실을 반영한다. 이는 삼국시대에도 왕들이 자신의 권력의 원천을 여전히 무교적 신념과 관행에서 찾았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³³⁾

3. 예언점복 분석

삼국유사에서 점복과 예언의 주체 역할을 하는 주인공으로는 왕을 비롯하여 왕족, 귀족, 일관, 스님, 국선, 문인, 점복자, 무당, 남녀노소 등 일반인은 물론 까마귀, 솔개, 흰 닭 등 동물들도 예언의 간접 도구로 이용되고 있다.

31) 『삼국유사』권1.

32) 『삼국유사』권1, 南解王, 『按三國史云. 新羅稱王曰居西干. 辰言王也. 或云. 呼貴人之稱. 或曰. 次次雄. 或作慈充. 金大問云. 次次雄方言謂巫也. 世人以巫事鬼神尙祭祀. 故畏敬之. 遂稱尊長者爲慈充.』

33) 서영대, 『무교·도교·풍수지리설』, 『한국사상특강』, (서울: 서울대출판부, 1987), p.495.

고조선 - 부적

고구려 - 복술가의 부여왕 탄생 예언점

제2대 남해왕 - 무당의 유래

제4대 탈해왕 - 까치점, 까치는 길조, 풍수, 관상

탈해왕대(脫解王代) - 김알지(金閼智) 흰 닭의 울음소리로 신라국호 제정.

연오랑(延烏郎)과 세오녀(細烏女) - 일관

사금갑(射琴匣) - 찰밥의 유래, 새(까마귀 점)

선덕왕(善德王)의 지기삼사(知幾三事) - 물상점, 풍수, 개구리를 점쳐 적을 대파시킨다. 이는 선덕왕 스스로 점을 치는 주체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김유신(金庾信) - 김유신은 전생에 점쟁이

태종 김춘추 - 귀신, 예언 귀참(망국의 조참) 거북점, 나라멸망예언, 점성가 예언과 관련 죽임 당함

소정방과 새점 - 나당연합군으로 참전한 소정방이 술개의 모습을 보고 점복가에게 자문을 구한다. 자신이 죽을 것이란 예언에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다. 김유신이 술개를 제거하면서 소정방은 전쟁에 임하게 된다.

만파식적(萬波息笛) - 점, 일관

효소왕(孝昭王)대의 죽지랑 - 태몽

수로부인 - 언어의 마력(노래를 불러 부인을 구하다)

혜공왕 - 나라 망하는 징후보임

좌지왕 - 왕은 신하 박원도와 점쟁이가 뽑은 궤사를 친히 보고 인재를 등용하라는 충고를 듣고 사과하고 그들의 뜻을 좇아 인사에 적용하였다. 즉 점에 대한 신뢰를 하고 있었고 점쟁이들에 의해 정사가 일정부분 좌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예언자 고도령 - 신라불교의 기초를 잡은 아도의 어머니 고도령은 계림에 3,000여 달이 지난 후 불법이 크게 흥할 것을 예언하고 있다.

노자를 만드는 보장왕과 암자를 옮긴 보덕 - 고구려 멸망예언

원성대왕(元聖大王) - 점(꿈을 풀어 왕이 되다)

처용랑(處容郎)과 망해사(望海寺) 창건 - 일관(점) 부적, 왕이 귀신과 춤(산신), 나라 망할 것을 예언

진성여대왕 과 거타지 - 나라멸망 예언, 점, 목간으로 점치다. 지신께 제사지내고, 제비뽑기

- 무왕 - 요참을 이용 공주를 얻은 후 왕이 되다.
건훤 - 참어, 후백제의 멸망, 구름모양으로 통해 전쟁에서 승리를 확신하고 있다.
가락국기 - 천명을 지성으로 점쳐서 왕을 구하다. 점쟁이, 용녀
황룡사 9층탑 - 백제사람 석공의 꿈에 신라의 삼국통일 성취하게 된다. 그러나 석공의 입장에서는 조국 백제의 멸망하는 염원을 담도 불사에 임해야 하는 인간적인 고민에 빠지게 된다. 그러나 하늘은 백제의 멸망을 예견하고 있다는 말에 현실적인 타협을 하고 있다. 탑의 완성과 함께 석공은 생을 마감한다.
황룡사의 장육 - 불상의 눈물은 왕 승하의 징조, 나라멸망의 꿈
백률사 - 일관
낙산의 두 대성 관음, 정취와 조신 - 점치는 대가지, 간자로 좋은 땅을 고르다. 점쳐 불상을 모시다.
오대산 월정사의 오류성중 - 풍수
영취사(靈鷲寺) - 점보고 절을 세움
오대산문수사(五臺山文殊寺) 석탑기(石塔記) - 일관, 풍수
자장의 정물 - 별이 떨어져 품안으로 들어오는 태몽
원효불기 - 별이 떨어져 품안으로 들어오는 태몽, 언어의 마력(=노래를 불러 현부와 귀자를 얻음)
점찰법 - 진표의 전간, 진표율사의 죽음과 한반도 분단예언, 풀을 보고 땅점을 치다. 간자를 던져 좋은 땅을 고른다.
선도성모(仙桃聖母) 수희불사(隨喜佛事) - 새집(소리 개를 날려 집을 짓다)
월명사의 도술가 - 천문을 관찰하는 일관
홍덕왕 대의 아이를 묻은 손순 - 종으로 점치다.
진평왕 대 용천사의 혜성가 - 노래를 지어 부르니 별의 궤변이 사라지다.
생의사의 석미륵 - 스님이 꿈에 나타나 절 지을 곳을 알려주다.
무장사의 미타전 - 꿈
의상의 전교 - 스승 지엄 꿈에 의상이 나타나다.
심지의 계조 - 간지를 던져 좋은 땅을 고른다.
신인종의 시조인 명랑 - 법사의 어머니 태몽
동부여 - 꿈을 통한 건국예시
고구려 - 태몽 점

태종 김춘추 공 - 꿈을 사고팔다.

3.1. 왕의 예언

신라에서 왕의 역할은 통치뿐 아니라 기후와 농사의 豊凶을 점치고 적병의 침입으로부터 나라와 그 구성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예언은 물론 각종 의례를 주재하는 것이었다.

신라 제27대 선덕여왕은 국사와 관련해 세 가지 예언을 한다.

첫째는 당 태종이 홍색·자색·백색의 삼색으로 그린 모란꽃 그림과 그 씨앗 3되를 보내왔다. 왕이 그림을 보고서 “이 꽃은 반드시 향기가 없을 것이다.”라고 말하며 종자를 심도록 하였는데 그 꽃이 피었을 때 그 말과 같았다. 둘째는 영묘사(靈廟寺) 옥문지(玉門池)에 겨울철인데도 많은 개구리가 모여 사나흘 동안 울어댔다. 나라 사람들이 괴이하게 여기고 왕에게 물었더니……. “정예병 2000명을 거느리고 속히 서교(西郊)로 가서 여근곡(女根谷)을 물으면 반드시 적병이 있을 것이니, 덮쳐 죽여라”고 하였다……. 과연 그곳에는 백제 군사 500명이 와서 숨어 있었다. 셋째는 왕이 무恙(無恙)할 때 군신들에게 “짐이 어느 해 어느 날에 죽을 것이니, 나를 도리천(利天) 가운데 장사하라”고 하였다. 군신들이 묻자 “낭산(狼山) 남쪽이다”라고 하였다. 그달 그날이 오자 과연 왕이 죽었다……. 그 후 10여 년이 지나 문무대왕(文武大王)이 왕의 무덤아래 사천왕사(四天王寺)를 창건하였다.³⁴⁾ 이는 왕이 수혜자적 입장에서 스스로 짐을 치는 것으로 예언자적인 면모를 보여준다. 여성(선덕여왕)의 은밀한 곳을 옥문이라 표현하며 그곳에 남성이 들어가면 일정시간이 흐른 후 남성성은 죽는 것으로 표현한 것은 단순한 예언이라기보다 개방적인 성의

34) 『삼국유사』 권1, 善德女王 知機三事. 『初唐太宗送畫牡丹三色紅紫白, 以其實三升. 王見花曰. 此花定無香. 仍命種於庭. 待其開落. 果如其言. 二. 於靈廟寺玉門池. 冬月衆蛙集鳴三四日. 國人怪之. 問於王. 王急命角干闕川彌吞等, 鍊精兵二千人, 速去西郊. 問女根谷. 必有賊兵. 掩取殺之. 二角干既受命. 各率千人問西郊. 富山下果有女根谷. 百濟兵五百人. 來藏於彼. 取殺之. 百濟將軍弓召者. 藏於南山嶺石上. 又圍而射之. 又有後兵一千三百人來. 亦擊而殺之. 一無子遺. 三. 王無恙時. 謂群臣曰. 朕死於某年某月日. 葬我於利天中. 群臣罔知其處. 奏云何所. 王曰. 狼山南也. 至其月日王果崩. 群臣葬於狼山之陽. 後十餘年文虎大王創四天王寺於王墳之下. 佛經云. 四天王天之上有利天. 乃知大王之靈聖也.』

식으로 볼 수도 있다. 이러한 성의식은 노자에게서도 나타난다. “곡신(谷神)은 죽지 않는다. 이것을 현빈(玄牝)이라 이른다. 현빈의 문, 이것은 천지의 뿌리라 이른다. 뽕뽕(綿綿)히 있는 것 같이 써도 지치지 않는다.”³⁵⁾ 유사에서는 이와 관련해 여자는 음이니 그 색깔이 흰데 흰색은 서쪽을 나타낸다고 해석한다. 이것은 단순한 예지로써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역(易)에 기초한 것으로 당시 지식인 사회에서 역(易)이 보편적 학문으로 수학되었음을 알 수 있다. 모란꽃은 부귀(富貴), 나비는 질수(耋壽:80세)를 뜻하기 때문에 당 태종이 홍색, 자색, 백색의 삼색으로 그린 모란꽃 그림과 그 씨앗 3되를 보내왔다. 왕이 그림의 꽃을 보고 말하기를 “이 꽃은 반드시 향기가 없을 것이다.”라고 하며 종자를 뜯어 심도록 하였다. 그 꽃이 피어났다가 떨어지기를 기다려보니 과연 그 말과 같았다. 모란 그림에 나비를 그려 넣게 되면 모란꽃은 부귀(富貴)를 뜻하고 나비는 질수(耋壽:80세)를 뜻하므로 80세가 되도록 부귀를 누리기를 기원한다는 뜻이 되어 버린다. 영원히 부귀를 누리라는 의미가 나비를 그려 넣음으로써 80세까지로 제한되어버리는 것이다. 따라서 모란도에는 애써 나비를 그려 넣지 않는다.³⁶⁾ 선덕여왕의 지기삼사 가운데 모란과 관련된 예언은 당시 중국의 풍습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다.

후백제의 견훤이 그의 아들 신검으로부터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 고려 왕건에 귀의 후 신검과 전투를 준비하던 중 하늘 위 흰 구름의 모습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형상으로 변하고 있다. 고려 태조와 후백제의 견훤이 함께 군대를 사열하는데, 갑자기 칼과 창 같은 흰 구름이 우리 군대 쪽에서 일어나 적국을 향해갔다. 이에 북을 치면서 나아가니 후백제의 장군 효봉(孝奉)·덕술(德述)·애술(哀述)·명길(明吉) 등은 고려병사의 형세가 크고 정돈된 것을 바라보고, 갑옷을 버리고 진 앞에 나와 항복하였

35) 谷神不死 是謂玄牝 玄牝之門 是謂天地根 綿綿若存 用之不勤.(노자 6장)
여기에서 곡신(谷神)은 낱짜기의 오복한 곳에 묵고 있는 신령(神靈)이란 뜻으로 여성의 음부를 신비스럽게 표현하기도 한다.
옛날에는 산악을 모(牡)라 하고, 계곡을 빈(牝)이라고 하기도 했다. 모로하시 데쓰지 저, 『십이지 이야기』, (서울: 바오로 출판사, 2008), p.63.

36) 강제철, 『삼국유사의 문학적 탐구』, (서울: 이화문화사, 2008), p.288.

다.³⁷⁾ 여기서서는 자연의 변화된 모습을 해석하는 주체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군사를 일으킬 수 있는 위치에 왕건과 견훤이 있다. 구름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해석하고 ‘구름을 전투대형으로 보며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해석한 것이 위 두 사람인 것으로 보아 왕의 예언으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3.2. 일관(日官)의 점복

일관은 일기예보와 하늘의 변화를 통해 점을 보는 일을 업으로 하는 사람들로서, 천재지변과 밀접한 관련이 있던 당시에는 이들의 역할이 상당한 영향력을 지녔다.

신라에서 해와 달이 빛을 잃었는데, 일관(日官)이 아뢰기를 “해와 달의 정기(精氣)가 우리나라에 있었는데, 이제 일본으로 가버렸기 때문에 이와 같은 괴변이 있게 된 것입니다”라고 하였다.³⁸⁾

이는 아달라왕(阿達羅王) 즉위 4년에 연오랑 세오녀 부부가 사라져 일본에 머물면서 벌어진 사건으로서 일관은 예언을 통해 해와 달이 사라진 이유와 찾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해결책은 일본에 왕으로 가있는 이들 부부를 다시 부르는 것이다. 그러나 연오랑은 돌아올 수 없으니, 자신의 부인이자 왕후가 된 세오녀가 짝 비단을 가지고 하늘에 제사를 지내면 신라의 해와 달을 전과 같이 찾을 수 있으리라 예언한다.

제49대 헌강대왕(憲康大王)이 개운포에 놀이를 갔다. 돌아오면서 낮에 물가에서 쉬고 있는데 갑자기 구름과 안개가 컴컴하게 덮여 길을 잃고서 그 원인을 일관(日官)에게 묻는다. 일관이 대답하기를, “이는 동해에 있는 용이 변하니, 마땅히 선행으로 풀어야 합니다³⁹⁾”하였다. 신라는 말기로

37) 『삼국유사』권2, 後百濟 甄萱.

38) 『삼국유사』권1, 延鳥郎 細鳥女. 『是時新羅日月無光. 日者奏云. 日月之精, 降在我國. 今去日本. 故致斯怪』.

39) 『삼국유사』권2, 處容郎 望海寺. 『新羅 第六十九王 憲康大王 遊開雲浦. (在鶴城西南今

접어들면서 대내적으로 ‘신라의 수호신인 땅·바다·산의 신들이 국가의 위기를 왕에게만은 알려야겠다는 의지로 자연현상을 통해 위기를 알리는데⁴⁰⁾ 왕은 사찰 건립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동해 가운데 작은 산이 있는데 떠나려와 감은사를 향하고 있으며, 파도를 따라 오락가락합니다”라고 하니, 왕이 이상하게 여기고 일관 김춘질[金春質:춘일(春日)로도 되어 있음]에게 명하여 점을 치게 하였다.⁴¹⁾

경덕왕 19년 경자 4월 초하루에 두 개의 해가 나란히 나타나더니 열흘 동안이나 사라지지 않았다. 일관(日官)이 아뢰기를, “청컨대 인연 있는 승려로 하여금 산화공덕(散花功德)을 지으면 재앙이 물러날 것입니다⁴²⁾” 하였다.

일관들은 왕의 가까운 거리에서 머물면서 정치적 자문은 물론 일기의 변화를 읽고 그 해답을 구해주고 있는 것이다. 이외에도 일관(日官)의 역할은 다양하다. 절터를 찾다가 이곳에 이르러서 탄식하기를, ‘이 뜰의 중앙은 탑을 세울 곳이 아닌데 어찌 동쪽으로 옮기지 않는가?’라 하므로, 여러 승려들이 깨닫고 다시 옛터로 옮겼다.⁴³⁾

일관은 하늘의 별들(일월성신)의 운행·변화를 통해 예언을 하는 것은 물론, 땅의 지세를 통해 명당(길지)을 선정하고 사찰건립에 관여하기도 한다. 이 외 삼국유사에는 새, 길상초, 꿩 등을 통해 사찰 터를 선정하고 있다.

3.3. 동물을 이용한 예언

제4대 탈해왕 당시 포구에 한 노파가 있었으니, 이름은 아진의선(阿珍

蔚州) 王將還駕。晝歇於汀邊。忽雲霧冥。迷失道路。怪問左右。日官奏云。此東海龍所變也。宜行勝事以解之。

40) 홍기삼, 『불교문학연구』, (서울: 집문당, 1997), p.156.

41) 『삼국유사』권2, 萬波息笛.

42) 『삼국유사』권5, 月明師 兜率歌. 『景德王十九年庚子四月朔。二日 現。挾旬不滅。日官奏請緣僧，作散花功德則可禳』.

43) 『삼국유사』권3, 文殊寺 石塔記.

義先)으로 혁거세왕의 해척(海尺)의 어미였다. 노파가 바라보면서 말하기를, “이 바다 가운데는 원래 바위가 없거늘 어디서 까치가 모여들어 우는가?”라며 배를 저어가 찾아보니, 까치가 한 배 위에 모여 있고 배 안에는 쉼 하나 있는데, 길이가 20자에 넓이가 13자였다. 그 배를 끌어다 나무 아래 매어두고 길흉을 알 수 없어 하늘을 향하여 맹세하였다. 그리고 잠시 후에 열어보니 그 안에 단정한 남자가 있는데, 칠보(七寶)와 노비(奴婢)가 그 배 가운데 가득히 있었다.⁴⁴⁾

까치가 모여 있는 모습을 보고 이것이 길조인지 흉조인지 몰라 하늘을 향하여 점친 후 그 결과에 따라해 접근해 보니, 남자 아이와 7보 보석, 노비 등이 있었다. 까치가 우는 소리를 길조라고 해석한 후에 접근한 모양은 지금도 까치를 길조로 보는 것과 맥이 이어진다. 특히 아침에 까치가 우는 소리는 반가운 손님(소식)을 전해주는 전령사로 인식되고 있다.

제21대 비처왕(毗處王:혹은 소지왕(昭知王)으로도 되어 있음)이 즉위한 10년 무진에 천천정(天泉亭)에 행차하였는데, 그때 까마귀와 쥐가 와서 울었다. 쥐가 사람의 형상으로 말하기를, “이 까마귀가 가는 곳으로 찾아가시오[신덕왕(神德王)이 흥륜사에 가서 향(香)을 피우려고 하는데 길에서 여러 마리의 쥐가 꼬리를 물고 가는 것을 보고, 이상히 여겨 돌아와서 점을 쳐보니 ‘내일 맨 먼저 우는 까마귀를 찾아가라’고 하였다 하니, 이 말은 틀린 것임]”라고 하였다.

왕이 기사(騎士)에게 명하여 뒤따르게 하였는데, 남쪽으로 가피촌(避村: 지금 양피사촌(壤避寺村)으로서 남산 동쪽 기슭에 있음)에 이르렀을 때 두 마리의 돼지가 서로 싸우고 있어, 멈추어 구경하다가 갑자기 까마귀가 간 곳을 잃어버리고 말았다. 길가에서 배회하고 있으니, 때마침 한 노인이 못에서 나와 글을 바쳤다. 곁에 썩어 있기를, “뜯어보면 두 사람이 죽고 뜯어보지 않으면 한 사람이 죽는다”라고 하였다. 사신이 와서 바치니, 왕이 말하기를 “두 사람이 죽는 것보다는 열어보지 않고 한 사람이 죽는 것이 낫다”라고 하였다. 일관(日官)이 아뢰기를, “두 사람이란 서민

44) 『삼국유사』권1, 脫解王.

(庶民)이요, 한 사람이란 왕을 말하는 것입니다”라고 하니, 왕이 그렇게 여기고 뜯어보았다. 글에는 금갑(琴匣)을 쏘라고 써어 있었으므로 왕이 궁으로 들어가서 금갑을 보고 쏘았는데, 이는 내전(內殿)에서 분향(焚香)하는 승려와 궁주(宮主)가 몰래 간통하고 있었기 때문에 두 사람을 죽이게 한 것이다. 이로부터 매해 정월 상해(上亥)·상자(上子)·상오(上午)일에는 모든 일을 조심하면서 함부로 움직이지 않는 것이 나라의 풍속이 되었다. 그리고 15일을 오기일(烏忌日)로 삼아 잘밥으로 제사를 지내기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행하여지고 있다. 이것을 이언(俚言)으로 달도(怛怛)라고 하는데, 슬퍼하고 근심하면서 모든 일을 금기한다는 말이다. 그 뜻을 서출지(書出池)라고 하였다.⁴⁵⁾

비처왕이 천천정(天泉亭)에 행차하면서 쥐가 시키는 대로 왕이 기사(騎射)로 하여금 까마귀를 따라 가게 했더니 연못가에서 돼지 두 마리가 싸우고 있었다는 말은 비처왕때 이미 십이지신(十二支神)신앙에 의해 쥐, 까마귀, 돼지를 서출지(書出池)에서 나온 노용, 곧 수신(水神)의 사자나 수호신으로 믿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또 서출지의 수신이 종이에 적힌 점괘를 보고 궁주와 간통하고 있는 분수승을 처형한다. 이것은 민속종교와 외래종교인 불교와 갈등에서 분수승이 간통혐의로 축출되면서 1차 민속종교가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때 죽음을 당한 분수승은 최초의 순교자이며, 향을 피우고 기도를 올렸다는 내전은 내불당의 역할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후 민간에서는 까마귀는 흉조로 여겨 불길한 것으로 여기는 데 반해 돼지는 길한 동물로 여기고 있다. 임신 중에 돼지고기를 먹으면 아이의 피부가 거칠고 부스럼이 많이 난다는 민간속설도 있지만, 돼지꼬리를 먹

45) 『삼국유사』 권1, 射琴匣. 『第二十一毗處王(一作昭智王.) 卽位十年戊辰. 幸於天泉亭. 時有烏與鼠來鳴. 鼠作人語云. 此烏去處尋之(或云. 神德王欲行香與輪寺. 路見衆鼠舍尾. 怪之而還占之. 明日先鳴烏尋之云云. 此說非也.) 王命騎士追之. 南至避村.(今壤避寺村在南山東麓). 兩相鬪. 留連見之. 忽失烏所在. 徘徊路傍. 時有老翁自池中出奉書. 外面題云. 開見二人死. 不開一人死. 使來獻之. 王曰. 與其二人死. 莫若不開. 但一人死耳. 日官奏云. 二人者庶民也. 一人者王也. 王然之開見. 書中云射琴匣. 王入宮見琴匣射之. 乃內殿焚修僧與宮主潛通而所好也. 二人伏誅. 自爾國俗每正月上亥上子上午等日. 忌慎百事. 不敢動作. 以十五日爲烏忌之日. 以糲飯祭之. 至今行之. 俚言. 言悲愁而禁忌百事也. 命其池曰書出池.』

으면 글씨를 잘 쓰고 돼지꿈을 꾸면 재물이 생기며 꿈에 돼지를 보면 복이 오고 재수가 있다⁴⁶⁾고 전래되고 있다. 특히 돼지꿈을 꾸면 재수가 있을 것이란 생각은 복권 구입으로 이어진다. 이것은 사금갑 조에서 연유했다가보다 豚(돼지 돈)과 돈의 발음상 유사성 때문으로 생각된다.

고구려 보장왕 당시 대왕의 부인이 음양(陰陽)의 도를 역행하여 국경에 역류(逆流)하는 일이 있어, 점을 치던 추남이란 사람에게 물어보니 이와 같은 대답을 하게 된다. 이에 왕비가 추남의 예지력을 중심으로 시험에 들게 한다. 쥐 한 마리를 함 속에 넣고 이것이 무슨 물건이냐고 물으니 그 사람이 아뢰기를, “이는 쥐인데 모두 여덟 마리입니다”라고 하였다. 이에 실언이라 하여 참형(斬刑)을 가하려고 하니 그 사람이 맹세하기를, “내가 죽은 후에 대장(大將)이 되어 반드시 고(古)려를 멸망시킬 것이다”라고 하였다. 즉시 그를 참하고 쥐의 배를 갈라보니 그 속에 일곱 마리의 새끼가 있었으므로 그의 말이 맞았음을 알았다.

그날 밤 대왕의 꿈에 추남이 신라 서현공(舒玄公)의 부인의 품으로 들어간 것을 보고 여러 신하들에게 알리니 모두 말하기를 ‘추남이 맹세하고 죽더니 과연 맞았습니다.’ 했소 그런 때문에 고구려에서는 나를 보내서 그대를 유인하게 한 것이오, 공은 백석을 죽이고 음식을 갖추어 삼신(三神)께 제사⁴⁷⁾를 지내게 된다. 김유신의 전생은 고구려의 추남이란 방사이며, 억울하게 죽어 다음 생에는 그 원한을 풀겠다는 유언을 남기는 것은 불교의 윤회사상으로서 불교교리가 대중적 공감을 얻고 있음을 보여준다.

백제의 마지막 왕인 의자왕 재위 시, 멸망을 앞두고 여러 가지 기이한 현상들이 나타난다. 한 귀신이 궁중에 들어와서 크게 부르짖기를, “백제는 망한다, 백제는 망한다.”라고 하며 곧바로 땅속으로 들어갔다. 왕이 괴이하게 여기고 사람을 시켜서 땅을 파보게 하니, 깊이 3자 남짓 되는

46) 한정섭, 『한국인의 민속신앙』, (서울: 불교대학교재편찬위원회, 1996), p.39.

47) 『삼국유사』권1, 金庾信.

곳에 한 마리의 거북이 있었는데, 그 등에 글씨가 쓰여 있되 “백제는 둥근 달이요, 신라는 초승달과 같다.”라고 하였다. 점쟁이에게 물으니 말하기를, “둥근 달이란 가득 찬 것이니 가득 차지 않으면 점차 차게 되는 것입니다.”라고 하였으므로 왕이 노하여 죽였다. 혹은 말하기를, “둥근 달은 성대한 것이며 초승달은 미약한 것이니, 생각건대 우리나라는 강성하고 신라는 미약해진다든 것이 아닙니까?”라고 하니 왕이 기뻐하였다.⁴⁸⁾ 거북의 등에 신라는 초승달 같고 백제는 보름달 같다는 문자가 새겨져 있는 이변인데, 이것은 두 나라의 성쇠를 달의 속성에 비유하여 표현한 것이다. 달의 탄생과 죽음 그리고 재생은 대자연의 운행원리이며 또한 음양의 원리이기도 한 것이어서 백제 멸망이 거역할 수 없는 천명임을 암시하고 있다. 특히 거북은 신통력 있는 영물이며, 예부터 「구자결의지물야(龜者決疑之物也)」라고 하여 복서의 시초가 되었기 때문에 더욱더 百濟 멸망을 확신시키는 역할⁴⁹⁾을 한다.

신라 왕호의 하나인 차차웅이 巫⁵⁰⁾을 말한다는 것은 제정일치 사회에서 통치자를 뜻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후대에 오면 점을 보고 자신이 본 점(卜)에 의해 죽음을 당하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된다. 고구려 보장왕과 추남, 백제에서 의자왕과 복술가의 관계는 점(예언)이 권력자의 의증을 읽는 도구로 활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게 한다. 그러나 무자(巫者)의 미래에 대한 정확한 점복은 의자왕의 불만을 사서 죽음을 당하기는 하였으나 점복자로서 사실을 직언⁵¹⁾한 것이다. 우연의 일치인지 2년 후 백제는 나·당연합군에 의해 멸망하게 된다.

나·당의 군사가 진군하여 군사를 합쳐서 나루 입구로 진격해와 강가에 진을 쳤는데, 갑자기 새가 소정방의 진영 위를 맴돌므로 사람을 시켜

48) 『삼국유사』권1, 太宗 春秋公. 『有一鬼入宮中. 大呼曰百濟亡百濟亡. 卽入地. 王怪之. 使人掘地, 深三尺許. 有一龜. 其背有文. (曰)百濟圓月輪. 新羅如新月. 問之巫者. 云. 圓月輪者滿也. 滿則虧. 如新月者未滿也. 未滿則漸盈. 王怒殺之. 或曰圓月輪盛也. 如新月者微也. 意者國家盛而新羅寢微乎. 王喜.』

49) 손정희, 『민간신앙과 한국문학』, (부산: 세종출판사, 2001), p.109.

50) 서영대, 같은 책, p.495.

51) 임동권, 「삼국시대의 무·점복」, 『백산학보』 제3호 (1967), pp.166-167.

점을 치게 하니 말하기를, “반드시 원수(元帥)를 해칠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소정방이 두려워하고 군사를 이끌 고가서 중지시키고자 하니,⁵²⁾ 이런 모습을 본 김유신이 신검(神劍)을 뽑아 새를 죽여 소정방이 안심하고 전쟁에 임했다. 이를 통해 소정방이 점복을 신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진평왕 당시 안흥사(安興寺)에 머물면서 불사를 일으키려는 지혜라는 비구니 스님의 원력을 선도산(仙桃山)의 신모(神母)가 돕는다. 신모는 본래 중국 제실(帝室)의 딸이며, 이름은 사소(娑蘇)였다. 그녀의 부황(父皇)이 소리개 밭에 편지를 적어 보내며 “이 소리개가 멈추는 곳에 집을 지으라.”고 하였다. 사소가 편지를 받고 소리개를 놓아주니, 날아서 이 산에 와 멈추므로 드디어 와서 집을 짓고 지선(地仙)이 되었기 때문에 서연산(西巖山)⁵³⁾이라고 불렸다. 길지를 찾기 위해 새(소리개)를 날려 보내 그 새가 멈춘 곳을 살만한 곳으로 정하였다는 풍습이 있었다. 여기서 선도성모는 신선술(神仙術)을 터득하여 우리나라에 머물고 있었다고 전해지는 인물이다. 그가 머물 곳을 부왕으로부터 새 점을 통해 점지 받고 있다. 그러면서 안흥사 불사에도 동참하는 모습은 민속종교와 불교가 불사라는 형식을 통해 두 종교가 습합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3.4. 점복가의 예언

점복을 전문적으로 행하는 집단을 점복, 복술가라고 하는데 이들은 사주명리 혹은 신명을 통해 남의 미래를 예언하기도 하지만 상호(얼굴)를 통해 상대방의 과거는 물론 미래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다고 한다. 삼국유사에서도 이와 관련된 내용이 있다. 한 관상쟁이가 있어 아뢰기를, “이 사미를 살피건대 한 가지의 길상(吉相)도 없는데 남에게 존경과 신임을 받으니, 반드시 특별한 물건을 지녔을 것입니다.”라고 하므로, 사람을 시켜 조사하여 띠 끝에 작은 구슬⁵⁴⁾을 발견하게 된다. ‘볼품없던 사미

52) 『삼국유사』권1, 太宗 春秋公.

53) 『삼국유사』권5, 仙桃聖母 隨喜佛事.

54) 『삼국유사』권2, 元聖大王.

묘정에게 음식물을 얻어먹은 자라의 보은(報恩)으로 사미 묘정은 구슬을 선물 받고 권력을 얻지만 구슬이 원주인에게 돌아감으로 다시 과거 묘정의 본래 모습으로 돌아간다.’ 신라말년에 잡간 충지(忠至)란 자가 있어 금관(金官) 고성(高城)을 공격하여 빼앗고 성주장군(城主將軍)이 되었는데, 아간 영규(英規)라는 자가 장군의 위엄을 빌려 종묘에 제사를 빼앗고 음사(陰祀)를 행하려고 단오날을 맞아 제사를 지내자 사당의 들보가 까닭 없이 부러져 거기에 깔려서 죽고 말았다.⁵⁵⁾ 무속인이 굿을 행하려다 신의 노여움을 사 대들보에 깔려 죽었다. 이외에도 일상적인 곳에서 점복가의 점술은 작용하고 있다.

김질은 의희 3년에 즉위하여 용녀(傭女)와 결혼한 후 그녀의 당(黨)에게 벼슬을 줌으로써 국내가 소란해졌다. 계림국(鷄林國)이 모책을 써서 정벌하려고 하였는데, 박원도(朴元道)라는 한 신하가 간하기를, “하찮은 풀이라도 또한 우충(羽虫)을 포섭하거늘 하물며 사람이겠습니까? 하늘이 없어지고 땅이 꺼지면 사람이 어느 곳에서 보전되었습니까? 또 복사(卜士)가 점을 쳐서 해괘(解卦)를 얻었는데 말하기를, 엄지발가락을 풀어놓으면 친구가 오고 그 성실함도 따르게 된다(解而拇 朋至斯孚)고 하였으니, 임금께서는 주역의 괘를 보십시오”라고 하자 왕이 좋다 하고 사례하였다.⁵⁶⁾

미추왕 3년 성국공주(成國公主)가 병이 났는데 무당과 의약이 효험이 없어서 칙사(勅使)가 사방으로 의원을 구하였는데, 아도가 문득 대궐로 들어가니 그 질병이 나았으므로 왕이 크게 기뻐하여 소원을 물었다. 대답하기를, “빈도(貧道)는 구하는 것이 전혀 없고 다만 천경림(天鏡林)에 절을 짓고 불교를 크게 일으켜서 나라의 복을 빌고자 합니다.”라고 하였다. 왕이 허락하고 공사를 일으키도록 명하였는데, 풍속이 바야흐로 질겁하여 띠집을 짓고 머물러 강연하니, 때로 혹은 천화(天花)가 땅에 떨어졌

55) 『삼국유사』 권2, 駕洛國記.

56) 『삼국유사』 권2, 坐知王. 『金叱, 義熙三年即位, 娶傭女, 以女黨爲官, 國內擾亂, 林國以謀欲伐, 有一臣名朴元道, 諫曰遺草闕闕亦含羽, 況乃人乎, 天亡地陷, 人保何基, 又卜士筮得解卦, 其辭曰, 解而拇, 朋至斯孚, 君鑑易卦乎, 王謝曰可』.

으므로 흥륜사(興輪寺)라고 불렀다.⁵⁷⁾ 천경림은 그 명칭으로 보아 불교가 도입되기 이전에 재래신앙이 행해지던 장소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차 돈이 순교를 하면서 천경림을 설립했고 그것(천경림)을 방어하고자 했다’ 과거칠불 당시 사찰터라고 주장되기도 하였다. 이곳을 차지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의 건축물을 세우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사중 고기(古記)에 말하기를, “신라 진골(眞骨) 제31대 신문왕시대인 영순(永淳) 2년 계미에(본문에는 원년이라고 하였으나 틀린 것임) 재상 충원공(忠元公)이 장산국[長山國: 즉 동래현인데 또는 내산국(來山國)]이라고도 함] 온정(溫井)에서 목욕을 하고 성으로 돌아오다가 굴정역(屈井驛) 동지야(桐旨野)에 머무르게 되었다. 갑자기 어떤 사람이 매를 놓아 꿩을 쫓는데, 꿩이 금악(金岳)을 지나서 사라져버렸다. 이에 방울소리를 듣고 찾아가 굴정현 관사북쪽에 우물가에 이르니, 매가 나무 위에 앉아 있고 꿩이 우물 속에 있는데 물이 핏빛을 띠고 있었으며, 꿩이 양쪽 날개를 펴서 새끼 두 마리를 품고 있고 매 또한 측은하게 여기는 듯 감히 낚아채지 않고 있었다. 공이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어서 이곳을 점쳐보니 절을 세울 만하다 하므로, 서울로 돌아와서 왕에게 아뢰어 그 현의 관사를 다른 곳으로 옮기고 그곳에 절을 세운 후 영취사라고 하였다.⁵⁸⁾

승상 김양도(金良圖)가 어렸을 때 갑자기 입이 붙어버리고 몸이 뻣뻣해지니 말을 못하고 몸을 쓰지 못하였다. 김양도가 매양 보면 한 큰 귀신이 여러 작은 귀신을 거느리고 와서 집안의 모든 음식을 씹어서 맛을 보는데, 무당이 와서 제사를 지내면 여러 귀신이 다투어 모여서 모욕을 하였다. 김양도가 물러가게 하려고 하였으나 입으로 말을 할 수가 없었다. 이제 그의 부친이 법류사(法流寺)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승려를 청하

57) 『삼국유사』 권3, 阿道基羅.

58) 『삼국유사』 권3, 靈鷲寺. 『寺中古記云. 新羅眞骨第三十一主神王文代. 永淳二年癸未.(本文云元年誤.) 宰相忠元公. 山國(卽東萊縣. 亦名來山國). 溫井沐浴. 還城次. 到屈井驛桐旨野駐歇. 忽見一人放鷹而逐雉. 雉飛過金岳. 杳無迹. 聞鈴尋之. 到屈井縣官北井邊. 鷹坐樹上. 雉在井中. 水渾血色. 雉開兩翅. 抱二雛焉. 鷹亦如相惻隱而不敢攫也. 公見之惻然有感. 卜問此地. 云可立寺. 歸京啓於王. 移其縣於他所. 創寺於其地. 名靈鷲寺焉.』

여 경을 외게 하였는데, 큰 귀신에게 명하여 그 승려의 머리를 철퇴로 쳐서 땅에 넘어뜨리니 피를 토하고 죽어버렸다.⁵⁹⁾

예조는 우리들에게 어떠한 특정한 행위를 통해 앞날을 암시하고 있다.

현경 4년 기미에 백제의 오회사[(烏會寺:또는 오합사(烏合寺))]라고도 함에 큰 적마(赤馬)가 있어 주야로 여섯 시간 동안 절 둘레를 돌아다녔다. ‘2월에 여러 마리의 여우가 궁중에 들어왔는데, 한 마리의 흰 여우가 의자왕 좌평의 책상 위에 앉아 있었다.’ 4월에 태자궁(太子宮)의 암탉이 참새와 교미(交尾)하였고, 5월에 사자[부여(扶餘)의 강 이름] 물가에 큰 물고기가 나와 죽었는데 길이가 세 길이요, 먹은 사람들이 모두 죽었다. 9월에 궁중의 괴수(槐樹)가 마치 사람이 곡을 하듯이 울었고, 밤에는 궁남쪽의 길에서 귀신이 울었다. 5년 경신 봄 2월에 왕도(王都)의 우물물이 핏빛이었고, 서해 가에 작은 물고기가 나와 죽었는데 백성들이 먹어도 다하지 않았으며, 사비수가 핏빛이었다. 4월에 개구리 수만 마리가 나무 위에 모였고, 왕도의 사람들이 까닭 없이 놀라 도망하기를 마치 누가 붙잡기라도 하는 것같이 하여 넘어져 죽은 자가 100여 명이었고 재물을 잃어버린 자가 무수하였다. 6월 왕흥사(王興寺)의 중들이 모두 큰 물결을 따라 배가 절의 문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았고, 사슴만큼 큰 개가 서쪽으로부터 사자수가에 이르러서 왕궁을 향하여 짖었는데, 얼마 후 간 곳을 알 수 없었으며, 성 안에 여러 마리의 개가 길 위로 모여들어 짖고 혹은 곡을 하다가 얼마 후 흩어졌다.⁶⁰⁾ 그러나 사람들은 늘 자기에게 유리한 해석을 원한다. 최악의 상황에도 자신을 위로하고 위안 받고 싶어 하는 모습을 보인다. ‘불연국토설을 처음으로 암시하는 예언은 다음과 같다.’

아도(我道)는 본비(本碑)를 살펴보면 이러하다. 아도는 고(古)려 사람이며 어머니는 고도령(高道寧)인데, 정시((正始) 연간에 조위(曹魏)나라 사람 아굴마[我掘摩:아(我)는 성(姓)임]가 (고)구려에 사신으로 왔다. 사통(私通)

59) 『삼국유사』 권5, 密木摧邪. 『承相金良圖爲阿孩時. 忽口體硬, 不言不遂. 每見一大鬼率小鬼來. 家中凡有盤肴, 皆啖嘗之. 巫覡來祭, 則群聚而爭侮之. 圖雖欲命撤. 而口不能言. 家親請法流寺僧亡名來轉經. 大鬼命小鬼. 以鐵槌打僧頭地. 嘔血而死.』

60) 『삼국유사』 권1, 太宗 春秋公.

하고 돌아가서 임신하게 되었다. 아도가 태어나 5세가 되어 그 어머니가 출가(出家)하자 나이 16세에 위(魏)로 찾아가 아굴마를 뵈고 현창화상(玄彰和尚)의 강의를 들었으며 19세에 어머니에게 돌아와서 문안하였다. 어머니가 말하기를, “이 나라는 지금 불법(佛法)을 모르는데 이후 3,000여개 월이 지나면 계림에 성왕(聖王)이 나타나서 불교를 크게 일으킬 것이다. 그곳 도읍에는 일곱 군데의 가람(伽藍)을 세울 자리가 있는데, 하나는 금교(金橋) 동쪽 천경림[天鏡林: 지금의 흥륜사, 금교(金橋)는 서천(西川)의 다리를 말하는데 세속에서는 송교(松橋)라고 불림. 절은 아도가 기초를 세웠으나 중간에 폐해졌다가 법흥왕 정미 년에 이르러 일에 착수하고 을묘 년에 크게 공사를 열어 진흥왕이 완성하였음]이요, 둘은 삼천기[三川岐: 지금의 영흥사(永興寺)인데 흥륜사와 동시에 개창하였음]요, 셋은 용궁(龍宮) 남쪽[지금의 황룡사인데 진흥왕 계유년에 처음으로 개창하였음]이요, 넷은 용궁 북쪽[지금의 분황사(芬皇寺)로 선덕왕 갑오년에 처음으로 개창하였음]이요, 다섯은 사천미[沙川尾: 지금의 영묘사(靈妙寺)로 선덕왕 을미년에 처음으로 개창하였음], 여섯은 신유림[神遊林: 지금의 천왕사(天王寺)로서 문무왕 기묘년에 개창하였음]이요, 일곱은 서청전[婿請田: 지금의 담엄사(曇嚴寺)]이니, 모두 전불(前佛)때의 가람 터이며 법수(法水)가 오래 흐르던 땅이다. 네가 그곳으로 가서 대교(大敎)를 전파하면 석가의 제사가 동쪽으로 향하게 되리라”라고 하였다. 아도가 가르침을 받고 계림에 이르러서 왕성 서쪽에 우거하니, 지금의 엄장사(嚴莊寺)이다. 이때가 미추왕 즉위 2년 계미(己未)이다.

고도령(高道寧)은 목호자 다음으로 신라에 불교포교를 시도한 아도스님의 어머니이며 고(古)려 사람이다. 그는 “신라에 3천여 개월이 지나면

61) 『삼국유사』 권3, 阿道基羅, 『按我道本碑云. 我道高麗人也. 母高道寧. 正始間. 曹魏人我(姓我也.) 堀摩奉使句麗. 私之而還. 因而有娠. 節生五歲. 其母令出家. 年十六歸魏. 省觀堀摩. 投玄彰和尚講下就業. 年十九又歸寧於母. 母謂曰. 此國于今不知佛法. 爾後三千餘月. 林有聖王出. 大興佛教. 其京都內有七處伽藍之墟. 一曰金橋東天鏡林(今興輪寺. 金橋謂西川之橋. 俗訛呼云松橋也. 寺自我道始基. 至法興王丁未草創. 乙卯大開. 眞興畢成.) 二曰三川(今永興寺. 與興輪開同代.) 三曰龍宮南(今黃龍寺. 眞興王癸酉始開.) 四曰龍宮北(今芬皇寺. 善德甲午始開.) 五曰沙川尾(今靈妙寺. 善德王乙未始開.) 六曰神遊林(今天王寺. 文武王己卯開.) 七曰 請田(今曇嚴寺.) 皆前佛時伽藍之墟. 法水長流之地. 爾歸彼而播揚大敎. 當東嚮於釋祀矣. 道 敎至 林. 寓止王城西里. 今嚴莊寺. 于時未羅王即位二年癸未也.』

계림(鷄林)에 성왕(聖王)이 나타나서 불교를 크게 일으킬 것이다.”라는 예언을 한다. 그의 말처럼 2백 5십 년 후 신라 23대 법흥왕이 왕위에 오르면서 불교를 널리 알리는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된다.

4. 결론

이상 삼국유사 내용 가운데 점복과 예언을 대상 영역으로 설정하여, 왕의 예언, 일관의 점복, 동물점 예언, 점복가의 분석 등 네 개 영역에서 삼국유사의 내용을 검토해 보았다.

삼국유사를 중심으로 점복과 예언을 살펴보면, 점복과 예언이란 단순히 맞고 틀리는 차원을 넘어 당시 기성종교가 유입되기 전 사회전반에 깔려있는 믿음의 한 형태였으며, 민간신앙이 고등종교인 불교와 만나며 다툼이 있었고, 그 다툼의 수단으로 예언과 치병이 동원되었음을 알았다. 선행연구인 삼국사기가 유교적 윤리관·역사관 중심의 역사기술이라면 일연선사의 삼국유사는 인간적인 삶 그대로의 정감과 애환을 적나라하게 소개하고 있다. 이 원초적 환기력이 일연이 세운 전략이라고 하겠다. 이를 통해 이야기는 더욱 은근하면서도 힘 있는 감동으로 우리의 가슴을 울리는 것이다.

일연의 삼국유사 이후 근대적인 의미에서의 점복·예언의 연구는 전술한 바와 같이 우리민족에 의해서가 아니라 일제 강점기 일인 학자 무라야마 지촌(村山智順)이 조사·보고한 『조선의 점복과 예언』이 그 처음이다. 그의 조사는 당대인들이 점복과 예언과 연계하여 사회생활을 영위해 나갔으며, 조선의 점복신앙은 조선민중생활의 현재 및 장래에 필시 적잖은 영향을 미쳤으며, 도시는 물론 여하한 벽촌에 이르기까지 점복을 업으로 하는 자가 없는 곳이 드물 정도로 점복이 보편화되어 출생·혼인·장례·신병의 중대사부터 일상다반사에 이르기까지 정기적·임시적인 문복(問卜)이 성행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전하고 있었다.

이는 식민지에 대한 구체적 표본조사를 통해 통치수단을 마련하고, 식민사관을 주입하려는 목적의 보고인 데 반해, 그 원전인 삼국유사에서는 기층 민중에서부터 임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체자들이 미래를 점쳐 보고자 하는 모습을 엿볼 수 있었다.

일연은 삼국유사를 통해 점과 예언을 소개하며, 단 한 곳에서 자신의 생각을 드러낸다. “점을 쳐보아 마음과 소행이 일치하면 감응하고, 그렇지 않으면 마음에 이르지 않으니, 이를 허류(虛謬)라고 한다.” 점을 치는 복술자와 당사자 모두 동기감응(同氣感應)이 있고 한결같은 마음이 있을 때에만 바라는 바가 성취된다는 간결한 말만을 남긴 것이다. 이상 이러한 일연의 관찰자적 입장을 견지하여 살펴보았다. 앞으로의 연구과제에서는 점복과 예언이 당시 통치자는 물론 사회에 미친 영향을 좀 더 세세하게 연구해볼 필요가 있겠다.

■ 참고 문헌 ■

- 가미타 시게오, 신현숙 옮김, 『한국불교사』, 민족사, 1994.
- 강재철, 『삼국유사의 문학적 연구』, 이화문화사, 2008.
- 김탁, 『정감록』, 살림출판사, 2005.
- 김영태, 『한국불교사』, 경서원, 2005.
- 김영태, 『신라불교연구』, 민족문화사, 1987.
- 미르치아 엘리아데, 이윤기 역, 『사마니즘·고대적접신술』, 까치, 1996.
- 모로하시 테쓰지, 최수빈 역, 『십이지이야기』, 바오로출판사, 2008.
- 성백성, 「삼국유사의 神개념 이해」,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종교 교육 전공, 석사는
문, 1997.
- 서영대, 「무교·도교·풍수지리설」, 『한국사상특강』, 서울대출판부, 1987.
- 손정희, 『민간신앙과 한국문화』, 세종출판사, 2001.
- 이은봉, 『한국고대종교사상』, 집문당, 1999.
- 이능화, 이재근 역, 『조선무속고』, 동문선, 1995.
- 유동식, 「한국의 민속·종교사상에 대하여」, 『한국의 민속·종교사상』, 삼성출판사,
1997.
- 이을환, 「삼국유사에 나타난 언어의식 연구」, 아세아공론, 1980.
- 인권환, 『한국문학작가론』, 형설출판사, 1991.
- 임동권, 「삼국시대의 무·점복」, 『백산학보』 제3호, 1967
- 양중승, 「무당 귀물(鬼物)연구」, 『생활문물연구』 제2호, 2001.
- 일연 저, 최호 역해, 『삼국유사』, 홍신문화사, 2001.
- 이희수, 『토착화 과정에서 본 한국불교』, 불서보급사, 1971.
- 李耳, 송지영 역, 『노자』, (서울: 동서문화사, 1979).
- 조수학, 『삼국망조의 양상』, 영남대학교, 1984.
- 정병삼, 「신라불교사상사와 삼국유사 의해편」 『일연선사와 삼국유사』, 일연학 연구
원·한국학중앙연구원, 2006.
- 한정섭, 『한국인의 민속신앙』, 불교대학교재편찬위원회, 1996.

홍기삼, 『불교문학연구』, 집문당, 1997.

차용준, 『종교문화의 이해』 5권, 전주대학교출판부, 2002.

최남선, 『삼국유사』, 서문문화사, 1990.

최병현, 『한국사상특강』, 서울대 출판부, 1987.

村山智順, 『朝鮮の占トと豫言』, 김희경 역, 『조선의 점복과 예언』, 동문선, 2003.

모로사시 테쓰지 저, 최수빈 역, 『십이지 이야기』, 바오로 출판사, 2008.

『노자』

『삼국유사』

■ Abstract ■

Fortune-telling and Prophecy Examined Centering on Samgukyusa

Jeong-Tae Jang

Dongguk University

Choi, Nam-seon argued that Samgukyusa gives the first consideration to Shilla, Kyeongju, Buddhism and kings or queens, but this book doesn't give too much importance to Buddhism despite of the author Ilyeon who was a monk of Buddhism, rather is a rare material to inform us of the integration of Korean shamanist custom, Buddhism, Taoism and Confucianism, and our folk religions.

This article, which examines Samgukyusa centering on "fortune-telling and prophecy", doesn't only raise fortune-telling and prophecy because of the aspect of Buddhism.

Samgukyusa comprises five volumes, and mentions the myths about the origin of our race. For example, it mentions "Dangun myth", "Haemosu myth", the myth related to the founder of Shilla" and "national foundation myth of Garak-guk". These aspects show us the thorough racial consciousness of Ilyeon. Many other stories about Buddhism are also mentioned. The popular story about Weonhyo draws our attention where his love for Yosok princess is shown. Also, the story about Weonkwang where we can see the

Sesokogye, and the mysterious stories about Euisang, Buddhist towers and Buddhist statue are in the book. Fourteen pieces of Hyanga, which we can say are among the best cultural heritages, are written in the book. That's why it can be considered as both a history book and tale book. Futhermore, it has many materials for folk religions as a treasure house of folklore.

The fortune-telling and the prophecy, which we examined in this article, were a form of a belief above the question whether it is right or not, and when they met the higher class religion, Buddhism, they either conflicted with, or harmonized with, Buddhism. In the course, they developed as a new religious culture.

Ilyeon begins his book with “怪力亂神(strange force and confusing god)” in the first chapter, which is the lesson from Confucius. He also cites “大器晚成(big vessels slowly made)”, so we can see his thoughtful consideration not to incline to a certain religion.

Our nation's fortune-telling belief has a long history and great influence on the lives of people, which we can perceive through the report of a Japanese Murayama Jijon, who worked for Joseon Government-general in 1930s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The report said that there were many fortune-tellers everywhere in Joseon, and they played an important role in significant events of life including marriage, funeral and illness, and even in daily lives, regularly or temporarily. I found the original data about the belief in Samgukyusa, which shows many people from lower class to kings consult the fortune-tellers to prepare for the future.

Ilyeon only introduces the fortune-telling and the prophecy through Samgukyusa, but doesn't try to say his own thoughts. He keeps a

third person's view throughout the book, except the only one sentence. That is “When we consult the fortune-tellers, we are moved or not, depending on the unity of mind and behaviour, which we call as 虛謬.” The sentence means that the desired are accomplished only when the fortune-teller and the consulter are touched together and have harmonious minds. I perform this study with the same third person's mind as that of Ilyeon.

Key words: Samgukyusa, Ilyeon, fortune-telling, prophecy, Ilkwan

- ◎ 투 고 일 : 2009년 9월 28일
- ◎ 심 사 기 간 : 2009년 10월 5일~10월 10일
- ◎ 계 재 확 정 일 : 2009년 10월 12일